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7월 21일(목) 총 9매	
담당 부서	해양항만과	담당자	• 해양산업팀장 나민환 ☎ 440-4846 • 담당자 정유진 ☎ 440-484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 해양비즈니스 포럼 ...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막

- 7.21.(목)~22.(금), 송도컨벤시아, 해양산업 글로벌 리더 한자리에 -
 - 사전등록 1,250명 달성, 온·오프라인으로 참가 가능 -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해양비즈니스 포럼인 ‘인천국제해양포럼’이 막을 올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2)’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7월 21(목)부터 7월 22일(금)까지 양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해양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들이 미래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해양산업·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으로, 2020년 처음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이한 국제행사다.

매년 주요 글로벌 이슈와 해양산업을 연계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지난 2년간 총 18개국에서 95명 연사가 참여함과 동시에 매년 1,000여 명 이상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오프라인 참석을 더욱 확대했으며, 개막전 사전 참석 등록자 수가 1,200여명을 넘어설 만큼 호응이 뜨거웠다.

이번 포럼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과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해양분야 및 경제/미래전략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참석한다. 해외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석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포럼은 공식 누리집(www.iiof.kr)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므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인천국제해양포럼’ 검색

첫날 개막식에서 유정복 시장은 “급변하는 국제 경제상황과 기술 경쟁, 기후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거대한 도전은 인천 뿐 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2,500만 수도권이라는 대규모 배후 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길이 인천을 통해 세계로 향하고 있다”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인천의 대표 해양산업은 지금이 시작이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꿈꾸는 인천의 원대한 비전과 노력에 함께 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조세션과 5개 정규세션, 1개 특별세션 등 총 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각 세션마다 미국, 캐나다, 폴란드, 네덜란드 등 15개 국가에서 참여하는 40명의 연사와 토론자들이 기후변화와 공급망 붕괴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도래한 글로벌 이슈들을 바다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게 된다.

개막식 직후 이뤄진 기조세션에서는 다학제적 연구기관 사피엔스의 창립자이자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이스라엘 출신의 ‘유발 노아 하라리(Yuval Noah Harari)’가 온라인 연결을 통해 기술의 현명한 활용을 통해 인간이 번영하는 방법에 대해 연설했다. 이어, 2018년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를 발간하고, 2021 블룸버그 올해의 50인에 선정된 이회성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장이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위한 역할에 대해 연설했다.

*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 2018년 인천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제 48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특별 보고서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CO₂를 얼마나 감축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개막일 오후부터는 5개의 정규세션과 1개의 특별세션*, 부대행사 및 연계행사가 진행된다.

▲ [세션1: 해운물류]는 좌장 권평오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가 베리 아이켄 그린 UC버클리 교수,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 등과 함께 “세계 교역환경의 변화와 해양항만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최근의 세계 교역환경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진전상황, 세계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항만산업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 [세션2: 해양에너지]는 좌장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돌프 길렌 국제 재생에너지기구(IRENA) 혁신&기술 센터장, 레미 그루엣 오션에너지유럽(Ocean Energy Europe) 대표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해양산업 영향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해양산업, 친환경 에너지 적용 해양기술 개발 사례와 미래를 발표한다.

▲ [세션3: 항만네트워크]는 좌장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가 크리스틴 웨이디그 뉴욕뉴저지항 본부장과 구민교 서울대학교 교수 등과 함께 “항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현황”을 주제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경영과 연계한 주요 항만의 미래전략 및 사례를 공유한다.

* ESG :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세션4: 해양관광]은 박재아 인도네시아 창조경제부 한국지사장이 남태평양 오세아니아의 국가 키리바시의 페테로 마누폴라우 관광청장, 박상원 경희대학교 교수 등과 함께 “BEYOND 코로나 19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 사례

및 추진전략, 해양레저도시 트렌드 분석 및 적용방안을 논의한다.

▲ [세션5: 극지·대양]은 강성호 극지연구소 소장이 피어 루이지 부티기그 알프레드 위그너 극지 연구소(AWD) 선임연구원,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등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극지와 대양의 미래”를 주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지-대양-한반도 환경변화 위기와 전망, 극지·대양 거버넌스와 대한민국의 글로벌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 [특별세션]은 좌장 이호철 인천대학교 부총장이 김태만 국립해양박물관 관장, 권기영 인천대학교 교수 등과 함께 “인천항 개항 1,650주년 및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인문학 여행”을 주제로 인천항 개항 1,650년의 역사와 현재에 던지는 의미,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한·중 카페리 노선과 한·중 관계에 대하여 고찰할 예정이다.

그밖에 포럼을 더욱 빛내 줄 부대행사 및 연계행사도 풍성하다.

청년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해(海)보자고! 취업·창업 박람회’도 포럼과 연계해 개최된다. 청년 및 취업준비생 대상 물류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채용예정기업 10개 부스를 현장에서 운영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면접 매칭을 지원한다.

또한, “당신의 바다를 들려주세요”를 주제로 바다를 떠올리면서 만든 음원이나 바다와 관련된 특별한 소리를 공모하는 ‘대국민 징글

공모전’ , 섬 여행 중 수거한 쓰레기를 섬 밖으로 가져와서 분리수거하는 “해(海)보자고! 해양플로깅” ,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3기) 등 연계행사도 진행된다.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의 자세한 내용은 포럼 공식 누리집 (www.iio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포스터

〈붙임〉 기조연사 소개, 세션별 참여 연사

※ 행사 사진은 개막식(11시) 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

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2

세상이 묻고, 바다가 답하다
The World Calls, The Ocean Waves

2022. 07. 21(목) - 22(금)



해양수산부·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연합뉴스가 주관하는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이 올해 7월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2020년 1회를 시작으로 총 18개국 95명의 연사가 참여한 수도권 최대의 해양 지식 포럼으로, 매년 해양산업의 주요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요

<p>일시 2022년 7월 21일(목) ~ 22일(금)</p> <p>주최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p>	<p>장소 인천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및 홈페이지</p> <p>주관  인천항만공사  연합뉴스</p>
--	---



공식 홈페이지 WWW.IIOF.KR

[홈페이지 바로가기](#)

프로그램

일 자	시 간	프 로 그 램
7월 21일 (목)	10:00 ~ 12:00	개회식 및 기초연설
	13:00 ~ 15:00	[세션1 해운물류] 세계 교역환경의 변화와 해양항만산업의 미래 - 최근의 세계 교역환경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진전 상황 - 세계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항만산업의 영향과 대응방향
	15:30 ~ 17:30	[세션2 해양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해양산업 영향 및 발전방안 - 기후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해양산업 - 친환경 에너지 적용 해양기술 개발 사례와 미래
7월 22일 (금)	10:00 ~ 12:00	[세션3 항만네트워크] 항만 ESG 현황 - SDG 중점과 연계한 주요 항만의 ESG전략 및 사례공유 +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3:00 ~ 15:00	[세션4 해양관광] BEYOND 코로나 19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 -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 사례 및 추진전략 - 해양레저도시 트렌드 분석 및 적용방안
	15:30 ~ 17:30	[세션5 국지·대양]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와 대양의 미래 -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대양-연변도 환경변화 위험과 전망 - 국지·대양 거버넌스와 대한민국의 글로벌 협력 방안
	10:00 ~ 12:00	[해양인문학] 인천항 개항 1,650주년 및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인문학 여행 - 인천항 개항 1,650년의 역사와 현대에 던지는 의미 - 국제어택티비티 개장, 한·중 카페와 노선과 한·중 관계

* 세부 주제 및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최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항만공사  연합뉴스

문의처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사무국
Tel. 02-2152-5095 Email: iiof2022@iioconvex.com

참고 1

기조연사 소개

기조세션 : This Change Everything(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 온라인 참석



Yuval Noah Harari

유발 노아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국적: 이스라엘
- 역사학자, 철학자
- 2019 다학제적 연구기관 사피엔스 창립
- 2009, 2012 폴론스키상 수상
- 2020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기조연사
- 저서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등

기조세션 : 공급망 단절과 기술 활용: 모범사례에서 얻는 교훈

* 현장 참석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의장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의장
- 2010-현재 Asian Development Bank 총재 자문위원장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부문)
- 2012-현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 2019 타임(TIME)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선정
- 2020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the Profession Award" 수상

참고 1

세션별 참여 연사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
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2

참여자 소개
1일차 | 7월 21일(목)

기조연설 *Keynote Speech*

유발 노아 하라리
Yuval Noah Harari
역사학자, 교수, "Sapiens" 저자
Historian, Professor, Author of "Sapiens"

이화성
Hoehung Lee
국제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회장
IPCC Chair,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ession 1. [해운물류] 세계 교역환경의 변화와 해양물류산업의 미래

권영오
KWON, Pyungoh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
Chair Professor,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바리 아이젠그린
Barry Eichengreen
UC버클리, 대타는 국제경제연구소 교수/기초교수위원장
Professor/Board Member, UC Berkeley/PRI

니난 비주 우옌
Ninan Biju Gorem
세계은행
Senior Port Specialist, World Bank

아굴 미카엘 크위트코프스키
Agul Michal Kwiatkowski
S&P Global
Senior Economist, S&P Global

정인교
Inkyo Cheong
인하대학교 교수
Professor, Inha University

최영순
Chee, Youngsoon
H&M
전세계에 항해업 관리본부장
Head of global trade management, H&M

Session 2. [해양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해양산업 영향 및 발전방안

홍종호
Hong, Jong Ho
서울대학교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레미 그루엣
Remi Gruet
Ocean Energy Europe (OEE) CEO
OCEAN Energy Europe (OEE)

돌프 길렌
Dolf Gelsen
국제해양에너지기구 (IRENA) 이사장
Director, 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홍기용
Hong, Ki-yong
국립해양물류연구소 책임연구관
Principal Researcher, KRISO

구즈만 피가르
Guzman Figa
Oceon Winds IOW
총괄대표
Head of Business Development Asia Pacific, Oceon Winds IOW

유병용
Byeongyong Yoo
한국조선해양
Vice President, KSCE

성용준
Sung Yongjun
AGNE Inc.
CEO, AGNE Inc.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
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2

참여자 소개
1일차 | 7월 21일(목)

기조연설 *Keynote Speech*

유발 노아 하라리
Yuval Noah Harari
역사학자, 교수, "Sapiens" 저자
Historian, Professor, Author of "Sapiens"

이화성
Hoehung Lee
국제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회장
IPCC Chair,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ession 1. [해운물류] 세계 교역환경의 변화와 해양물류산업의 미래

권영오
KWON, Pyungoh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
Chair Professor,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바리 아이젠그린
Barry Eichengreen
UC버클리, 대타는 국제경제연구소 교수/기초교수위원장
Professor/Board Member, UC Berkeley/PRI

니난 비주 우옌
Ninan Biju Gorem
세계은행
Senior Port Specialist, World Bank

아굴 미카엘 크위트코프스키
Agul Michal Kwiatkowski
S&P Global
Senior Economist, S&P Global

정인교
Inkyo Cheong
인하대학교 교수
Professor, Inha University

최영순
Chee, Youngsoon
H&M
전세계에 항해업 관리본부장
Head of global trade management, H&M

Session 2. [해양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해양산업 영향 및 발전방안

홍종호
Hong, Jong Ho
서울대학교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레미 그루엣
Remi Gruet
Ocean Energy Europe (OEE) CEO
OCEAN Energy Europe (OEE)

돌프 길렌
Dolf Gelsen
국제해양에너지기구 (IRENA) 이사장
Director, 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홍기용
Hong, Ki-yong
국립해양물류연구소 책임연구관
Principal Researcher, KRISO

구즈만 피가르
Guzman Figa
Oceon Winds IOW
총괄대표
Head of Business Development Asia Pacific, Oceon Winds IOW

유병용
Byeongyong Yoo
한국조선해양
Vice President, KSCE

성용준
Sung Yongjun
AGNE Inc.
CEO, AGNE Inc.